

서민시장 강조한 목포... 생활불편 민원 급증

목포시 인터넷 민원창구에 생활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시정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서민들의 '손톱 밑 가시 뽑기'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는 민선 6기 시정철학인 소통을 위해 시청 홈페이지에 신문고(申聞鼓) 성격의 '홍몰씨에게 바랍니다' 코너를 마련해 놓고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나 제안, 개선해야 될 사항, 비전 제시 등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에 접수된 민원 현황 분석을 통해 서민들이 어떤 분야에서 불편을 겪고 있고, 문제점은 뭔가를 살펴봤다.

올들어 인터넷 민원 280건... 대부분 교통·건설·건축분야 "굵직한 사업도 좋지만 서민이 체감하는 시책 펴야" 지적

◇민원 얼마나 제기했나=올해 들어서만 이 코너에는 지난 29일 현재 총 280건의 민원이 올라왔다. 이 민원을 집계한 결과, 교통행정과 관련된 민원이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방재과 관련 41건, 건축행정과 관련 35건, 자치행정과 관련 34건으로 조사됐다. 이어 공원녹지와 14건, 도시계획과 14건, 보건위생과 13건, 자원순환과 12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복합민원 포함)

공개된 민원 중 목포시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나 정책 제안은 10여 건에 불과했고, 10건 가운데 7.5건은 실생활과 밀접한 민원이어서 시민들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통, 건설, 건축 분야 등 서민들과 직결된 민원이 44%를 차지했고, 총 280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46건이 공개민원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현행 이 코너는 민원을 제기할 경우 민원인이 공개와 비공개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공개의 경우 민원인의 실명이 노출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내용을 조회 또는 열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불만족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 일부 민원인의 경우 담당부서의 무성의한 답변과 불성실한 답변 태도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재차 민원을 제기한 경우도 발견됐다.

공개된 민원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된 교통 분야의 경우 주·정차 단속에 대한 불만이 주를 이뤘고, 택시 호객행위와 불법전, 버스노선, 배차 간격, 버스정보시스템에 대한 민원들이 대다수였다. 이들 가운데는 목포를 찾은 관광객들이 올린 글도 상당수에 달해 관광 목포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

또 건설 분야는 노점상과 광고물 관련 민원이 1순위로 꼽혔고 건축 분야에서는 소방도로, 불

법 건축물, 건축물 철거, 건축 균열 등이 많았다. 1민선 6기 출범 이후 소통을 강조해 온 박홍률 시장은 외부 인사까지 영입해 '홍몰씨에게 바랍니다' 코너를 담당하는 '서민 소통실'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력이 최일선까지 미치지 못하는 시각지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책을 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들은 "교통이나 환경 분야 생활민원은 시장이 의지를 갖고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입을 모은다.

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의식 제고가 급선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불법 쓰레기 투기를 비롯해 교통혼잡을 방해하는 물상식한 주차, 불법 현수막, 불법 건축물 등과 관련된 민원이 상당수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김도형 목포지방자치 시민연대 대표는 "선출직인 단체장들이 가시적인 성과에만 눈이 멀어 굵직한 사업을 펼치는 데 집착하는 경향이 많다"면서 "말로만 서민 시장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서민들의 '손톱 밑 가시'를 뽑아주는 것이 진정한 서민시장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민원 분석 결과, 사회복지 관련 민원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이는 시가 전체 예산의 45%를 복지비로 투입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하수와 관련 민원도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다. 하수관거 BTL(임대형 민자사업) 1. 2. 3 단계 사업을 펼친 결과로 풀이된다. 자치행정과 소관 민원 34건은 대부분이 신호등이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과 관련된 경찰서 소관 업무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글·사진 임영준·고규석기자 lyc@



가로막힌 횡단보도 (하○○씨 민원)



불법 광고 현수막 설치 (최○○씨 민원)



쓰레기 불법투기 (김○○씨 민원)



목포버스터미널 인근 정류장 교통혼잡 (김○○씨 민원)

목포시 현안 업무 보고 누락에 뿔난 시의회 관광경제위

행정사무감사 거부·의회 업무 중단 선언

목포시의회가 목포시의 일방적인 업무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거부하는 물론 모든 의회업무를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관광경제위원회(위원장 조요한)는 지난 28일 긴급 간담회를 갖고 "2015년 행정사무감

사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 거부'라는 특단의 조치와 관련, 위원회는 "목포시의 현안 업무에 대한 보고누락과 부실 보고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매년 7월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의회

활동에서 예산심의 다음으로 중요한 업무라는 점에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사태는 10대 의회 사상 초유의 일이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사건의 발단은 목포시가 지난 27일 실시한 '2015년 목포 향구축제 대행사 선정' 과정에서 시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도 없이 진행된 데서 비롯됐다.

그동안 시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임찰공고 ▲중화권 국제교류협력 추진 ▲해상 케이ابل 용역 ▲플라즈마 발전소 설명

회 등 중요한 난제들을 추진하면서 보고를 누락하거나 불성실한 보고를 일삼아 "시의회 경시 풍조가 만연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조요한 위원장은 "평소 소통을 강조해온 민선 6기 박홍률 호가 이처럼 일방통행식 행정을 펼친다면 시의회 존재 가치가 없다는 데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져 모든 업무 중단에 준하는 선택을 하게 됐다"며 "올바른 보고 없이는 업무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안전심사, 예산안 심사까지도 진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영산강 포구 물길 답사

목포문화연대 참가자 모집

목포문화연대가 영산강 포구 물길 답사 참가자를 모집한다. 목포문화연대는 전남 문화예술재단 후원으로 '포구 물길따라 떠나는 남도문화예술 나루터' 시민 기행을 진행한다.

이번 답사 기행단에는 화가(3명)와 시인, 포구 전문가 등이 동행하면서 영산강 중심의 포구 역사상, 설화·전설, 지역유래 등을 들려준다.

포구 물길 답사는 30~31일 영산포(조선)를 시작으로 ▲영산포(근대)(6월 6~7일) ▲회진포 (7월 25~26일) ▲구진포(8월 1~2일) ▲석관포·죽산포(9월 12~13일) 등 6개 지역을 3개 지역데마로 나눠 1박2일 코스로 실시된다. 모집 인원은 답사 일정에 따라 선착순 10명 이내다.

한편 목포문화연대는 지난해에 '남도땅이름 문화기행 화합'을 실시했다. 문의(061-283-5464)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목포보건소 건강증진사업 최우수상

목포시보건소가 최근 보건복지부 주관의 지방자치단체 통합 건강증진사업 종합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보건복지부가 전국 254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운영성과'를 평가해 종합 부문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시 보건소는 지난 28일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7회 지방자치단체 보건사업 통합 성과대회'에서 기관 표창과 함께 포상금 1600만원을 받았다. 특히 지난 2014년 보건복지부 건강증진분야 전남 1위, 전국 3위 우수상을 수상한데 이어 올해도 수상의 영예를 안아 명실상부한 시민의 건강증진기관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게 됐다.

김연다 소장은 "앞으로도 대상자 중심의 효과적인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사업 체감도를 높이고 시민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임영준기자 lyc@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 정례회

침수방지 시설 비교 견학도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정영수)가 2015 제1차 정례회와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비교 견학을 실시했다.

도시건설위는 지난 27~29일 2박3일 일정으로 충남 공주시와 당진시 하수종말처리장, 군산시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 및 침수방지 사업장을 둘러봤다. 공주시와 당진시의 하수종말 처리장은 각각 목포시 남악 하수처리장(중설)과 북한 하수고도처리장의 동일 시공사로, 하수고도처리 방식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또 군산시는 목포시와 마찬가지로 2014년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도시재생 선도지역 13곳 중 하나로 도시재생 활성화와 계획 수립 등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정영수 위원장은 "비교 견학을 통해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한 것들을 목포시 발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해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회원전용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 신용상태 등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산맞공제 2,500억 조기달성 기원 행운 이벤트

대상

- 자동차 3년 이상 신규 신청 고객 - 1장 (7년 이상 2장)
- 전자금융 (인터넷, 텔레뱅킹) 신청 AND 체크카드 신규 발급고객 - 1장
- 장기예탁금 신규 및 재예치 고객 - 1장 (1천만원 이상)
-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가입 고객 - 1장
- 장기적금 신규 가입 고객 - 1장 (1회 불입금 30만원 이상)
- 신규 공제 가입 대상 고객 - (초회 공제료 5만원 이상 -1장, 10만원 이하 -2장, 10만원 이상 -3장)
- 카드결제 계좌 변경 - 2장 및 급여이체 변경 고객 - 1장

행사기간
2015. 04. 06 (월) ~ 2015. 11. 30. (월)

추첨일
2015. 12. 01 (화) 본 금과 본점에서 추첨 - 당첨자 개별통보 및 공고문 게시(경쟁입회 하 추첨 예정)

경품안내

| | |
|--------------------|----------------------|
| * 1등 - 순금 골드바(1명) | * 4등 - 족욕기(10명) |
| * 2등 - 의류 스타일러(1명) | * 5등 - 백화점 상품권(20명) |
| * 3등 - 아이패드(3명) | * 행운상 - 온누리 상품권(40명) |

주의사항

- 미성년자는 추첨대상에서 제외.
- 경품 중복 당첨 시 상위 상품에 대하여만 지급.
- 추첨일 당일 행운권 교부 대상 조건 유지자에 한 하여 지급되며, 미 유지시 경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상기 이외는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옆)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옆)